

기사입력: 01/28/2014 16:22

인쇄하기

다솜 한국학교 '한국 역사문화 프로젝트 발표회'



지난 25일 서니베일의 다솜 한국학교 학생들이 한국 역사문화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다솜 한국학교]

한국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배운 한국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니베일의 다솜 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개최한 한국 역사문화 프로젝트 발표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배운 '오백년 조선' '화려한 고려' 중에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한 프로젝트를 개인 및 팀별로 준비해 발표했다.

신라반에서는 조선시대 27대 임금 이름을 산토끼 노래에 맞춰 불렀고 조선반에서는 조선의 인물에 관한 역할극이 펼쳐져 갈채를 받았다.

대한민국반에서는 '고려, 알아보자' 와 '조선, 살아보자' 라는 제목의 포럼이 열려 각 시대에 대한 특징과 자량이 발표됐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자와 고려의 문화재, 조선을 빛낸 인물들에 대한 열띤 발표도 이어졌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역사문화교육 위원장을 맡고있는 최미영 다솜한국학교장은 "한인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류사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발표력과 표현력 부족에 있다"며 "학생들이 발표회를 통해 역사 공부 뿐만 아니라 발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유경 기자 quueen@koreadaily.com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INS** AMERICA